

# 장흥군, 로하스타운 300세대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 태창건설(주)·(유)플러스건설, 자본력·시공능력 갖춘 민간투자회사 2025년까지 안양면 기산·비동리 일원 민간자본 725억 투자해 조성

장흥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전라남도로부터 정남진 로하스타운 1단계 지구 300세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 받았다. 새로 지정된 사업자는 태창건설(주)과 (유)플러스건설로, 자본력과 시

공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회사이다. 로하스타운 300세대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안양면 기산·비동리 일원에 민간자본 725억 원을 투자해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축 및 분양을 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그간 중단되었던 39세대 포함, 300세대 조성 사업을 2021년부터 정상 추진하게 되었다. 2021년 2월중 39세대 공사를 재개하여, 5월까지 모델하우스 3동(20, 30, 40평대)을 건축, 12월까지 39세대 건

축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이후 260세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하스타운 내에 상업 시설과 숙박 시설(40객실 규모)을 동시에 유치·조성할 예정이다. 로하스타운 300세대가 조성되면, 약 700여 명의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김도영기자

##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황지우 시인 해남에 자료 기증...희귀도서 포함

해남 출신 대표 현대문인으로 백련재 문학의집에 입주하여 집필하고 있는 황지우 시인이 총 570여점의 자료를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받은 자료는 한국현대문학사의 질곡과 변주를 한 눈에 보여주는 귀중한 가치를 가진 소장품들로 구성되었다. 해남으로 귀향하며 인연을 맺은 땅끝순례문학관과 특수한 관계 속에서 문학관 활성화와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자신이 소장한 자료에 대해 기증 결정을 내렸다. 특히 기증자료 중에는 시인이 직접 공부했던 원어 서적들과 문단의 선·후배 시인들과의 교류가 담긴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기증자료는 상해에 따라 분류 및 보존처리 후 땅끝순례문학관 소장유물로 보관된다. 유물은 향후 땅끝순례문학관의 전시콘텐츠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되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문학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황지우 시인에게 기증증서 발급, 기증자 표기 등을 통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게 예정이다.



황지우 시인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기법을 통해 현실 부정의 시학을 드러냈던 한국 대표 현대 시인으로 일명 '혁명과 시의 시대'라 불리는 1980년대 한국시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이다.

황지우 시인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기법을 통해 현실 부정의 시학을 드러냈던 한국 대표 현대 시인으로 일명 '혁명과 시의 시대'라 불리는 1980년대 한국시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이다.

황지우 시인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기법을 통해 현실 부정의 시학을 드러냈던 한국 대표 현대 시인으로 일명 '혁명과 시의 시대'라 불리는 1980년대 한국시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이다.

기증취체본부

## 완도군, 신년 화두 '유지경성(有志竟成)'...역점 사업 성공 이끈다

### 해양치유·해양바이오산업 연계 해양관광거점도시 건설 주력

신우철 완도군수는 4일 시무식을 통해 "신년 화두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의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하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건설을 위해 군정을 착실하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촌뉴딜300 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역대 최대인 1,0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해양치유산업 관련 예산 926억 확보와 안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해양치유 및 산림치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완도군은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해양치유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거점도시 건설에 매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완도 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021년 군정 핵심 과제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선도적 추진, ▲생산과 소비가 선 순환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농·수·축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충족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군 100년 대계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와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 해조류 바이오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 구축 등에 속도를 낸다.

또한 12개 읍면의 특색 있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권역별 특성에 맞춰 집중 개발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해양치유와 연계하여 해양관광 거점도시 건설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확대, 해외시장 개척, 청정바다 보전, 도시재생 사업,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완도 경유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등 완도 발전을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끝으로 신 군수는 "코로나19로 인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더욱 힘쓰고, 군민의 삶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은 영상을 통해 시청했다.

완도=김광수기자

## 강진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2020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이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강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했다.

강진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워크숍은 한해 동안 나눔과 실천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한 봉사자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29일 꽃차 만들기 교육, 30일 라탄공예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승욱 강진군수, 이봉석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이 함께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나눔과 실천으로 행복이 넘치는 강진을 만드는데 앞장서 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참여와 나눔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군, 시무식 갖고 2021년 군정 힘찬 출발

### '마부정제' 각오로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위해 노력

진도군이 지난 4일 2021년 군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무식에서 이동진 군수는 "우리 진도군은 올해 '군민과 함께 씩씩이 나아간다'는 군정 목표를 세우고, '마부정제'(달리는 말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민선 7기 후반부를 만족시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더 큰 진도군을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동력 삼아 올해도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공직자들에게 "발전하는 진도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의 최대 과제인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진도읍 활성화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진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군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모든 힘을 쏟겠다"며 "모두

가 한마음 한 뜻으로 보배섬의 매력을 살려 군민의 품격과 진도군의 군격을 한 단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동진 진도군수와 간부공무원 등은 시무식에 앞서, 오전에 군강공원 총련담을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준수하고, 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신년 행사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